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12월 5주차 주간동향 (12.26.~1.1.)

[2023.1.4.(수), 제6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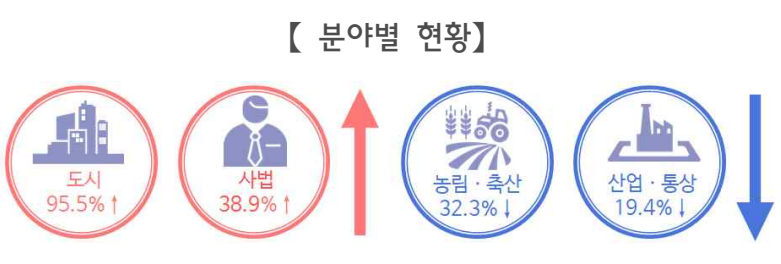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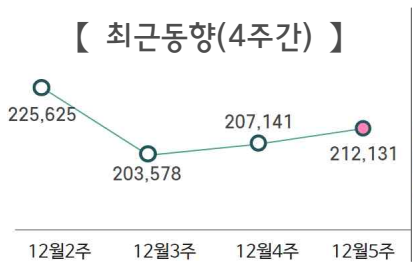
이슈 키워드

순위	12월 4주차(12.19.~12.25.)			12월 5주차(12.26.~1.1.)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불법 주정차	81,516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68,858	생활불편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4,810	생활불편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365	생활불편
3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12,194	생활불편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7,425	생활불편
4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3,032	생활불편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77	생활불편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2,877	생활불편	덕은지구 입주(버스 신설 요구)	2,708	지역이슈
6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2,746	지역이슈	버스정류소 불법(불법 주정차)	2,611	생활불편
7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2,639	지역이슈	위례 아파트(착공지연 해결 촉구)	2,537	지역이슈
8	인천 서구(검단 물류센터 건설 반대)	2,023	지역이슈	위례 주민(경관개선사업 이행 요구)	2,746	지역이슈
9	덕은지구 입주(버스 신설 요구)	1,788	지역이슈	검단 아파트(마감재 목록 공개 요구)	1,923	지역이슈
10	인천 검단(5호선 연장 요구)	1,738	지역이슈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1,802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
 : 12월 5주차(12.26.~1.1.) 기간 Top 10 순위 진입 키워드

민원 동향

- 12월 5주차 민원은 212,131건(일평균 30,304건)으로 지난주(207,141건) 대비 2.4% 증가 ※ 안전신문고(47.9%), 국민신문고(35.0%), 서울 등(17.1%)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제주(55.6%), 광주(28.1%) 등 증가한 반면, 전북(15.8%), 세종(8.9%)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고양 대덕산그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요구 및 수원 영흥공원 폐기물 고지 위반 엄중 대처 요구 등 도시 및 사법 순으로 증가



주요 민원

□ 대덕산그린공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요구 (1,513건)

- 고양시와 LH에서 '21년 6월부터 대덕산에 그린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중단됨
- 대덕동 지역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덕산그린공원 조성을 위해 고양시와 LH는 조속한 사업 추진 협의 진행 요구



- 대덕산그린공원 왜 중단한겁니까? 대덕산에 조성한다고 하여 21년 6월부터 2차 회의까지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아무런 진행이 없는지요? 3차 회의 진행을 중단한 고양시와 LH는 조속한 추가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2.27.,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덕동, 국방대 부지 추가인원 포함, 아파트, 주거지역, 상업시설 등 유동인구 2~5만명 예상합니다. 향동지구를 포함하면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대덕산 공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뿌리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공원 조성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12.29.,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례 유기견보호센터 건립 백지화 요구 (702건)

- 송파구청은 위례저류지2 부지에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 등 사업 추진 검토 중에 있음
- 부지 바로 옆 유치원, 중학교, 아파트 단지가 인접하는 등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건립 백지화 요구



- 위례저수지2 부지에 이미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동물복지센터(유기견보호센터 등)를 지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혐오시설을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미 임장과 예산심의까지 완료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필요 없습니다. (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물복지센터로 위장한 유기견보호센터이자 혐오시설, 반대합니다.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기회겠지요? 부지 바로 옆에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장담합니까? 아이들은 물리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 재발 대책 등 요구 (89건)

○ 12월 29일 13시 49분경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사건으로 인적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

-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 중인 방음터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 : 인명피해 46명(사망 5명, 부상 41명), 재산피해 도로 및 방음터널 약 600m소실, 차량 45대 소실('22년 12월 30일 기준)

- **검토요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마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47번 우회도로에 방음터널이 설치되고 있는데, 뚜껑은 사고 난 터널과 같은 자재인 PMMA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도 화마가 발생 된다면, 아파트와 인접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방음터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12.30., 한국토지주택공사)
-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 6월 두명1터널 안에서 화재사고가 났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든 터널 자재가 화재에 취약한 소재 인지 전수조사 요청드리며, 안전조치 강화 방안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0., 경상남도 양산시)

【 제2고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관련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p>행정안전부 보도 자료</p> <p>2022. 12. 29. (목) 죽지보도</p> <p>보도 일시: 2022. 12. 29. (목) 죽지보도</p> <p>담당 부서: 재난협력실, 화원자 과 장 이치선 (044-205-6330), 산업교통재난대응과 담당자 시기관 정광석 (044-205-6336)</p> <p>행정안전부 장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지시</p> <p>○ 오늘(12월 29일) 13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하였다.</p> <p>○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인원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또한, "인근 도로와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p> <p>○ 한편, 현재 화재진압 및 연소확대 방지중에 있다.</p>	<p>원인통 장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 유사시설 긴급점검 지시(1보)</p> <p>- 29일 안양성남고속도로 복의왕 톨게이트 상행통행실 찾아 피해 상황 점검-</p> <p>□ 원외통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목)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양-성남 고속도로 복의왕 톨게이트 상향 통제실을 방문, 인명 구조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 파악을 지시하였다.</p> <p>□ 현재까지는 화물차량 사고가 터널 내 화재까지 이어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p> <p>□ 원 장관은 "먼저, 이번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p>	<p>원인통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3보)</p> <p>- 원장관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 -</p> <p>□ 원외통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금)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p> <p>□ 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 라고 밝혔다.</p> <p>○ 또한 원 장관은 "방음터널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며 이 과정에서 비용 및 재량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본 대책을 전문가들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	---	---

【 주요 언론보도 】

<p>SBS</p> <p>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완전... '5명 사망'</p> <p>입력 2022.12.29 오후 5:05 수정 2022.12.29 오후 5:38</p>  <p><영카></p> <p>오늘(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복의왕IC 근처 고가도로에서 난 화재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다 꺼졌지만, 아직 수색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p>	<p>매일신문</p> <p>대구 수성IC 인근 방음터널, 화재사고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판박이</p> <p>입력 2023.01.03 오후 4:46 수정 2023.01.03 오후 7:12</p> <p>대구 방음터널 5곳 중 3곳, 화재 취약 PMMA 소재 사용 외부 공기와 차단되는 '완전터널형' 2곳 있어 만지고속도로 관계자 "전수조사 마친 뒤 대책 마련하겠다"</p> 	<p>"방음시설 재료는 불연성"... 국토부, 10년 전 이 지침 썼다</p> <p>지침 개정하며 '화재 안전 재질기준' 삭제</p> <p>김명진 기자 정채빈 기자 입력 2022.12.29 23:02</p>  <p>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구간이 베타만 양상하게 남아 있다./연합뉴스</p>
---	---	---

<SBS(2022.12.29.)>

<매일신문(2023.1.3.)>

<조선일보(2022.12.29.)>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 (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방음터널 전수 조사 등 대책 마련 요구	1AA-2212-0907644	한국토지주택공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